

청정수행 가풍 회복 현대사회 변화 부응 ‘승가청규’ 마련

이판사판 모든 스님 대상...고불식

한국불교의 청정수행 가풍을 회복하고 현대사회 변화에 맞는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선, 교, 율과 이판과 사판 등 종단 모든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종단 청규가 마련됐다. 조계종은 지난 8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대비원력의 발심과 실천을 위한 대한불교조계종 승가청규 고불식’을 봉행했다. 고불식에는 원로회의 의장 밀운스님, 원로의원 해승·성우·세민스님, 총무원장 자승스님 등 총무원 집행부 스님과 중앙종회의장 성문스님을 비롯한 종회의원 스님,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종단은 현대사회에 맞는 승가청규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2012년 종단쇄신위원회 산하에 청규제정위원회가 구성돼 청규 제정 논의가 본격화됐고 이후 ‘종단 불신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제4차 100인 대중공사와 교육원 주최 ‘현대사회 승가청규’ 세미나를 통해 여론을 수렴해 이날 고불식을 갖게 됐다.

고불식은 총무부장 지현스님과 조계사 주지 원명스님이 부처님 전에 청규를 봉정하는 것으로 막이 올랐다. 이어 전계대화상 성우스님은 고불문을 통해 “승가청규는 한국불교의 수행가풍을 잇고 지계정정의 생활규범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승가청규를 실천궁행의 근간으로 하여 중생의 안락과 행복을 위한 시급적으로 삼고자 한다”고 청규가 갖는 의미를 강조했다.

진제 중징예하는 원로의장 밀운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계율은 깨달음을 위한 수행이며 승가의 화합을 도모하는 공동규범”이라며 청규를 잘 지키고 정진할 것을 종도들에게 당부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도 이번 승가청규가 가진 중요성을 역설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종단 청규는 승가가 지켜야 할 생활율리와 대비원력의 발심과 실천을 위한 보살행을 강조하고 있다”며 “승가가 숭수수범해 이 청규를 실천함으로써 불교가 현대사회에서 종교적,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발원하고 정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중앙종회의장 성문스님은 “원로의장 스님들께서 필두로 종단 각계 주요 인사들과 종단쇄신위원회를 구성해 청규 제정 논의를 시작하리라, 지난 달 제4차 대중공사에 이르기까지 우려곡절과 논란이 많았지만 승흥진작과 종단개혁에 대한 사부대중의 여망에 힘입어 승가청규가 빛을 보게 됐다”며 “승가청규 제정을 통해 우리 종단의 선풍이 진작되고 수행가풍이 되살아나길 부처님과 역대 조사 전에 엮드려 기원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임태규 기자 che11@bulgyo.com

제203회 중앙종회 임시회 종헌개정 후속 중법 정비

동국대 이사후보 6인 추천 각종 위원 선출 건 마무리

제203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향후 종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지난 8일 개최한 종회 임시회에서는 ‘총무원장 선출제도 혁신 특별위원회(가칭)’가 만장일치로 구성됐다. 종헌중법 개정 작업과 병행하기 위해 위원장에는 종회 종헌중법특위 위원장 초격스님이 선출됐으며, 특위 구성은 종회 의정단에 위임해 구성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에는 종단 집행부와 교구본사 주지, 종회의원 등 21명으로 꾸리기로 했다.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종도들의 여론 수렴과 공청회 개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임시회에서 특위가 구성됨에 따라 지난 8월10일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중앙종회의장 성문스님, 전 호계원장 범등스님이 현행 선거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한 ‘엄화미소선거법’ 등 선거제도 개선 논의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초격스님은 “총무원장 선거제도와 관련해 많은 분인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혁신적인 선출제도를 모색해야 할 때가 왔다”며 “특위를 구성하면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 후보

자 복수 추천 동의의 건은 무기명 비밀 투표 결과, 성타·명강스님(성타스님 후임), 수불·무관스님(심경스님 후임), 보광·지환스님(미산스님 후임) 등 6인 후보자가 복수 추천됐다. 일면·호산스님 추천의 건은 찬성 31표, 반대 40표로 부결됐다.

중앙종회의원 만당스님 외 39인이 발의한 ‘중앙종회의원 영당스님 의원 제명의 건’은 차기 종회로 이월됐다. 의원 제명이라는 징계의 건을 다루는 만큼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하기 위한 판단에서다. 임시회에서 의원 제명의 건을 발의한 스님들은 영당스님이 종회의원의 위상 훼손, 품위 저해 등을 이유로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날 임시회에서 처

리하지는 뜻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종회의장 성문스님은 “영당스님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 사안인만큼) 절차상 하자를 남기지 않기 위해 11월 종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하는 것이 어떨까”고 제안했고, 대표 발의했던 만당스님이 이에 동의하면서 의원 제명의 건은 차기 종회로 이월됐다.

이밖에도 이날 임시회에서는 종헌 개정예 따른 중법 정비의 일환으로 원로회의법·선거법·중앙종회법 등을 통과시켰으며, 호계원장 및 초심호계원장, 범규위원장, 재심호계위원 선출 등 인사 의안 등을 처리하고 회기를 앞당겨 폐회했다.

▶관련기사 2면

임태규 기자 che11@bulgyo.com



아이디어 캠페인으로 참여형 기부 확산

설립 7년만에 기부금 400배... 올해는 가을 밤 함께 걸으며 쪽방촌 이웃들에게 연탄 지원



지난해 저소득 가정을 위한 연탄 지원 릴레이 ‘아이연탄맨’ 캠페인은 탄자니아 주민들까지 동참할 정도로 화제가 됐다.

사진제공=아름다운동행

자를 지원하는 아이스버킷 챌린지에서 착안된 ‘아이연탄맨’은 지명 받은 사람이 손바닥에 연탄 모양을 그린 사진을 찍어 다른 3명에게 전송하고 기부금을 자동응답전화(ARS)나 모금계좌를 통해 기부하는 캠페인이다. 아름다운동행 직원 1명이 3000원(연탄 약 5장)을 기부하면서 시작된 캠페인은 릴레이 바람을 타고 어린 아이에서 노스님에 이르기까지 연령과 출제가를 막론하고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1000만원의 기금을 모으었고, 두 달 만에 연탄 1만7000장을 전달할 수 있게 됐다.

오는 10월8일 전개되는 쪽방촌 연탄 지원금 마련을 위한 ‘108DAY-도심 속 아름다운 밤길 걷기’ 행사도 참여형 캠페인 중 하나다. 참가자들은 단순히 참가비 2만원을 기부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가을 밤 정취를 느끼며 그동안 소홀했던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3시간 동안 총

11km를 걷는다. 108배, 명상 등을 통해 ‘나’와 ‘이웃’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하며 마음 내는 체험 프로그램도 있어 더욱 뜻 깊다. 참가자들은 쪽방촌을 방문해 연탄을 직접 전달할 수도 있다. 동행의 색다른 캠페인은 나눔문화 확산은 물론 기부금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아름다운동행에 따르면 설립 첫 해인 지난 2008년 1352만 2000원에 불과했던 모금액은 올 한해 동안(8월 31일 기준) 49억9648만2638원(구호기금 포함)으로 늘었다. 설립 7년 만에 약 400배 증가한 것이다.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자광스님은 “차별화된 캠페인을 고안해내려는 노력이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것 같다”며 “동행의 설립 취지에 맞게 ‘함께’하는 기부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고 전했다.

이정민 기자 kylee@bulgyo.com



선학원 분원장 스님들에게 드리는 글

최근 선학원 이사장 법진스님은 선학원 분원장 스님들을 상대로 편지의 글을 보냈습니다. 그 글에는 ‘만약 저들의 요구대로 서명하여 소송에 악용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특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소송이라 함은 조계종이 선학원을 상대로 지난 8월 26일 제출한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조계종이 선학원을 상대로 낸 이 소송의 골자는 선학원이 조계종과의 결별수순을 밟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학원 이사장 법진스님의 말은 “서명에 동참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일종의 겁박(劫迫)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지하시지요. 지난 2013년 4월 11일 개최된 선학원 이사회에서 선학원 정관 제3조에 명시된 ‘대한불교조계종의 종지·종통을 봉대한다’는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명시된 임원기준에서

‘조계종의 승려’라는 규정도 삭제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는 선학원과 조계종은 무관하며, 선학원 소속 승려는 조계종 승려가 아님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선학원 분원장 스님들께서는 조계종과 선학원의 정상화에 노력한 사찰이 외려 권한 등 법적 문제에서 조계종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실례를 들자면, 선학원 전 이사장 정일스님이 창건하신 서울 우이동 보광사와 김해 보광사는 선학원이 이사회 결의로 창건주 권한을 박탈했지만, 대법원 판결에서는 창건주 권한 승계를 인정받았습니다.

조계종은 <중헌>에 창건주 사자상승을 명시하고 있는 까닭에 합부모 창건주 권한을 박탈할 수 없듯이, 선학원 또한 선학원 정관에 창건주 권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학원은 내부규정인 <분원관리규정>을 통해 선학원 재단에 비협조적인 경우 ‘창건주 권한이

상실됨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학원 재단과 분쟁했던 우이동 보광사와 김해 보광사 경우에서 보듯이 법적 효력은 없다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조계종과 선학원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협조하시고 동의하신 선학원 분원의 창건주 및 분원장과 그 도제에 대해서는 권리제한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권리제한을 유예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조계종과 선학원의 결별을 막아야 한다는 사명 때문에 피치 못하게 소송을 제기하게 됐지만 조계종은 언제든지 그 어디서라도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조계종과 선학원이 세세상생 도반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 청정수행 가풍에 진작하는 데 뜻을 함께 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불기(佛紀)2559년 9월 7일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장 법 등 함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